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 것이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사상 유례없는 격난속에서 승리의 신심드높이 용기백배하여 부흥강국의 새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이고있는 속에 조국해방전쟁 승리 69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7.27은 주체조선의 위대한 전승의 날, 환희의 명절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공화국에 있어서 령토와 인민을 사수하기 위한 생산자본의 조국방위전쟁이었으며 공화국의 자주권을 건드리는 침략자들에게는 참패밖에 차려질것이 없다는 진리를 력사의 갈피속에 뚜렷이 새겨넣은 전승이었다.

미국은 조선전쟁에 저들의 방대한 무력과 추종국가군대들까지 총동원하였으며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전쟁방법을 다 적용하였다. 그러나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인 조선전쟁에서 미국을 피수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은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 공화국은 세계전쟁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진승신화를 창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삶의 보급자인 자기 조국, 자기 제도를 결사적으로 지키려는 사생결단의 각오를 안고 떨쳐 일어나 침략자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래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청소년 공화국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군사적공세를 막아내고 자기의 령토와 자주권을 피로써 사수해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힘을 받은 군대와 인민의 힘을 당할 자 세상에 없다는 것을 똑

똑똑 보여준 력사적 증거이다. 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내고 인민전쟁사에 빛날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였으며 투철한 조국수호정신과 영원한 승리전통을 마련하였다는 여기에 7.27이 가지는 중대하고 심원한 의미가 있다.

공화국에서 7월 27일은 국가의 뜻깊고 경사로운 명절들 가운데서 승리를 기념하는 류달리 궁지스러운 명절로 되고있다.

이날을 맞으며 로병대회를 비롯한 국가적인 기념행사를 해마다 성대히 진행해오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민가. 단숨에 지나간 영웅시대의 항쟁사를 기념하고 돌이켜보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전승세대가 창조한 조국수호정신과 불굴의 투쟁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하여 사회주의건설에 구원함으로써 막아나서는 모든 도전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을 위한 길에서 보다 큰 전진과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이다.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69년이 지나간 오늘 공화국은 위대한 강국의 새시대, 자존과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고있다. 하지만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범죄적인 전진적압살정책은 조선전쟁시기나 지금이나 후호도 달라지지 않았으며 하여 지구상 가장 격렬한 조미대결전은 세계에서 이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이 세계적인 대결전에서 조선은 어제도 승리하고 오늘도 승리하고있으며 래일에도 승리할 것이다. 7.27은 영원한 조선의 승리이다.

왜 그러한가.

그것은 공화국에 오늘의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절세위인, 천출명장이 계시기 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

로 조직력도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조미대결의 년대들마다에서 무비의 담력과 신묘한 지략으로 미국을 궁지에 몰아넣고 싸우며 이기는 신화를 창조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담력과 배짱을 발휘하신 김정일장군님과 함께 조국수호정신과 투쟁기풍을 영원히 이어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가렬한 전화를 나열해 창조된 위대한 조국수호정신으로 무장하고 령토와 인민을 지키는 조선의 전승전통을 영원한 승리의 날로 빛나고 있는 것이다.

7.27의 밤하늘가에 아름답게 터져오르는 축포를 바라

보며 공화국인민들은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신 커다란 긍지와 함께 전승세대가 창조한 조국수호정신과 투쟁기풍을 영원히 이어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가렬한 전화를 나열해 창조된 위대한 조국수호정신으로 무장하고 령토와 인민을 지키는 조선의 전승전통을 영원한 승리의 날로 빛나고 있는 것이다.

7.27의 밤하늘가에 아름답게 터져오르는 축포를 바라

보며 공화국인민들은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신 커다란 긍지와 함께 전승세대가 창조한 조국수호정신과 투쟁기풍을 영원히 이어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가렬한 전화를 나열해 창조된 위대한 조국수호정신으로 무장하고 령토와 인민을 지키는 조선의 전승전통을 영원한 승리의 날로 빛나고 있는 것이다.

7.27의 밤하늘가에 아름답게 터져오르는 축포를 바라

7.27이 영원한 조선의 승리로 되는것은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력에 의하여 담보되기 때문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공화국은 보충으로 원자탄을 휘두르는 미국과 맞서싸워 끝끝내 전승의 신화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오늘 공화국은 그 어떤 도전도 제압, 통제하고 그 어떤 강경도 압승할 수 있는 절대적힘을 지니고있다. 다시말하여 공화국의 무장력은 그 어떤 위기에든 대응할 철저한 준비가 되어있으며 공화국의 핵전쟁적력 또한 절대적인 자기의 힘을 자기의 사명에 충실히, 정확히, 신속히 동원할 만전태세에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전승 69돐 기념행사에서 하신 연설에서 적들의 발악적인 준비확장행동과 위험한 군사적기동들을 더욱 철저히 제압분쇄해야 할 우리 혁명의 정세는 우리 군사력의 더 빠른 변화를 필요로 제기하며 이 력사적과업의 책임적인 실행을 위하여 우리 당중앙은 최근에 국가방위력의 발전전략에 관한 입무를 책정하고 정확한 집행에 령도하고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불세출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고 전승세대의 남과 투쟁정신을 이어 그이의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가는 군대와 인민이 있으며 그 어떤 침략자도 단호히 쳐갈질수 있는 무진막강한 군력이 있어 조선의 승리는 영원한 것이다.

본사기자 주 일 분

형토의 천재

위대한 조국수호정신을 굳건히 이어가도록 하시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창조된 위대한 조국수호정신을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심어주시어 그 정신과 승리전통으로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고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와 기적만을 창조하게 하시는 절세위인, 탁월한 령도자이시어.

공화국군대와 인민이 지난 세기 50년대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는 세계전쟁사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특출한 기적을 창조한 위대한 승리로서 가장 값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다 아느냐와 같이 지난 조선전쟁은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었다.

공화국은 그때 창건된 지 불과 2년밖에 안되었고 반면에 미국은 수많은 전쟁에서 한번도 저분적이었다는 제국주의우두머리였다. 거기에다 미국은 저들에게 추종하는 수많은 국가무력들까지 끌어들이었다.

하지만 전쟁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는가.

조선은 미국을 피수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을 타승하고 전승의 위대한 신화를 창조하였다. 그 밑바탕에는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은 공화국군대와 인민의 영웅적인 조국수호정신이 놓여있다.

미국과 남조선피호적공화국의 불의의 무력침공을 반공격으로 쳐물리치면서 금강을 도하고 불비 쏟아지는 락동강을 건너는 때 인민군사들의 가슴속에 고동친것은

수령님 찾아주시 귀중한 내 조국을 한복숨바쳐 지켜내려는 결사의 각오와 불굴의 투쟁정신이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참다운 삶과 행복을 안겨준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이었다. 하기에 인민군용사들은 고마운 제도와 자기의 고향, 자기 부모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그 모든것을 빼앗으려는 원수에 대한 증오로 준엄한 시련의 고비들과 가슴저린 희생의 아픔을 억척스럽게 이겨냈으며 무비의 대적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잔인하고 야수적인 침략자들에게 투로죽음을 안겼었다.

이 자랑스러운 전승세대들과 그들이 창조한 위대한 조국수호정신이 있어 공화국은 전후에도 접쌍이는 도전과 난관들을 뚫고 헤치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바로 이 위대한 정신, 승리전통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해나가도록 하시어 위대한 위대한 전승을 해마다 의의있게 기념하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어.

전승세대들의 남과 투쟁정신을 온 나라가 따라배우고 기가 빛나어나가도록 하시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승리전통교양의 중심지로, 전승세대와 위훈을 길이 전하는 불멸의 기념비로 훌륭히 일떠세워주시어 전쟁로병들을 《위대한 력사를 창조하신 귀중한 스승》, 《전리마의 기

심으로 자주강국의 러전을 다진 주인공》, 《승고한 정신과 넉을 후대들에게 심어준 위대한 스승》, 《항상 공경하고 귀감으로 모시는 혁명의 로선배》, 《진실적인 영웅시대의 주인공들》, 《고마운 은인들이며 참다운 스승들》로 내세워주시어 로병대회들에 몸소 참석하시어 축하연설도 해주시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일말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9돐을 맞으며 국가적인 성대한 기념행사를 진행하도록 해주시고 몸소 기념행사에 참석하시어 뜻깊은 연설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설에서 가장 준엄한 년대에 우리 국가와 민족을 구원하고 미래를 수호한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의 공적은 무궁변영할 공화국과 더불어 영원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전승세대의 영웅적인 투쟁정신과 넉을 따라배워 이 땅에 강대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건설을 기어 올려세우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조선전쟁 당시 공화국은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청소년 국가였지만 미국은 110여차례의 고공작은 전쟁을 겪으면서 단 한번도 패전을 몰랐다는 악의 제국이였다.

조선전쟁은 그야말로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었다. 하지만 손을 들고 항복한것은 미국이였다.

잘못 고른 시간 선택

《잘못 고른 시간》 김명일

적대세력들의 도발을 단호히 짓뭇개버리며 (2)

《보복》에는 보복으로

1968년 1월 23일 해상순찰임무를 수행하던 조선인민군 해군함정들은 공화국영해에 침입하여 비법적인 정탐활동을 감행하던 미국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하였다.

알려진것처럼 《푸에블로》호는 수많은 나라들의 연해를 항행하면서 현대적인 전자탐지기기와 각종 감시기구를 리용하여 정탐활동을 해왔다. 그러다가 공화국령해에서 덜미를 잡힌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면피한 미국은 《푸에블로》호가 《공해상에서 나포》되었다는, 간첩선이 아니라 해양관측선이라는 허언을 늘어놓으며 도끼를 매를 뜨는 격으로 행동하였다.

당시 미국대통령은 새벽에 《푸에블로》호가 나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국가안보장외회를 소집하고 2-3일 사이에 핵추진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비롯한 수많은 항공모

함들과 순양함, 구축함들을 조동출동에 들이밀었다.

이와 함께 수만명의 해군비비행정비대의 퇴역을 중지시키고 미국본토의 공군부대들에 경계태세를 명령하였으며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에 300대이상의 군용기기를 집결시켰다. 그리고 오키나와로부터 분사식전투기 2개 대대와 수많은 해군함정, 대공포들을 출동시켰다. 그러다가 공화국의 지령에 따라 남조선피호군도 전진전야상대에 들어갔다.

미국은 《푸에블로》호와 그 승무원들을 당장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복》조치를 《북조선의 한계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 《《푸에블로》호사건으로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다》고 하면서 공화국을 위협공갈하였다.

미국의 광란적인 새 전쟁도발은 위대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서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경우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다》고 하면서 공화국을 위협공갈하였다.

미국의 광란적인 새 전쟁도발은 위대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서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경우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다》고 하면서 공화국을 위협공갈하였다.

미국의 광란적인 새 전쟁도발은 위대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서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경우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다》고 하면서 공화국을 위협공갈하였다.

미국의 광란적인 새 전쟁도발은 위대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서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네가지 잘못》으로 선사받은 참패

《잘못 고른 시간에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적에 대한 잘못된 전쟁이었다. 이것은 지난 세기 조선전쟁에서 참패를 당한 미국의 비명소리이다.

조선전쟁 당시 공화국은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청소년 국가였지만 미국은 110여차례의 고공작은 전쟁을 겪으면서 단 한번도 패전을 몰랐다는 악의 제국이였다.

조선전쟁은 그야말로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었다. 하지만 손을 들고 항복한것은 미국이였다.

잘못 고른 시간 선택

《잘못 고른 시간》 김명일

《잘못 고른 시간에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적에 대한 잘못된 전쟁이었다. 이것은 지난 세기 조선전쟁에서 참패를 당한 미국의 비명소리이다.

조선전쟁 당시 공화국은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청소년 국가였지만 미국은 110여차례의 고공작은 전쟁을 겪으면서 단 한번도 패전을 몰랐다는 악의 제국이였다.

조선전쟁은 그야말로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었다. 하지만 손을 들고 항복한것은 미국이였다.

잘못 고른 시간 선택

《잘못 고른 시간》 김명일

《잘못 고른 시간에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적에 대한 잘못된 전쟁이었다. 이것은 지난 세기 조선전쟁에서 참패를 당한 미국의 비명소리이다.

조선전쟁 당시 공화국은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청소년 국가였지만 미국은 110여차례의 고공작은 전쟁을 겪으면서 단 한번도 패전을 몰랐다는 악의 제국이였다.

조선전쟁은 그야말로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었다. 하지만 손을 들고 항복한것은 미국이였다.

잘못 고른 시간 선택

《잘못 고른 시간》 김명일

《잘못 고른 시간에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적에 대한 잘못된 전쟁이었다. 이것은 지난 세기 조선전쟁에서 참패를 당한 미국의 비명소리이다.

조선전쟁 당시 공화국은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청소년 국가였지만 미국은 110여차례의 고공작은 전쟁을 겪으면서 단 한번도 패전을 몰랐다는 악의 제국이였다.

조선전쟁은 그야말로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었다. 하지만 손을 들고 항복한것은 미국이였다.

잘못 고른 시간 선택

《잘못 고른 시간》 김명일

《잘못 고른 시간에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적에 대한 잘못된 전쟁이었다. 이것은 지난 세기 조선전쟁에서 참패를 당한 미국의 비명소리이다.

조선전쟁 당시 공화국은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청소년 국가였지만 미국은 110여차례의 고공작은 전쟁을 겪으면서 단 한번도 패전을 몰랐다는 악의 제국이였다.

조선전쟁은 그야말로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었다. 하지만 손을 들고 항복한것은 미국이였다.

잘못 고른 시간 선택

《잘못 고른 시간》 김명일